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Participation Reports

1. 17th Student Leadership Forum (2011)

20051551 김민규

20071685 이은솔

2. 18th Student Leadership Forum (2012)

20080980 윤나영

20091111 홍석영

3. 19th Student Leadership Forum (2013)

20091080 채수정

20101989 곽인영

Beta Gamma Sigma 17th Student Leadership Forum
 Saint Louis, Fall 2010

일정: 2010 년 11 월 4 일 - 7 일

장소: Hilton at the Ballpark, Saint Louis, MO, USA

참가인원: 50 여개 대학 86 명

주요 일정:

일자	내용
11 월 4 일	16:00 St. Louis 도착 17:30 저녁식사 / 환영사 및 개회사 18:30 GMAT 설명회 19:30 "Understanding the Full Value of Your Beta Gamma Sigma Membership" 20:30 "Creativity, Chaos & Communication: An Interactive Leadership Experience"
11 월 5 일	7:30 아침식사 8:30 Welcome and Announcements 9:00 Leadership Sessions - "Teambuilding in Leadership" - "The Power of Your Influence" 11:00 "St. Louis Business Journal Smart Reader Seminar" 12:00 점심식사 13:00 Leadership Sessions - "A Panel of Young Careerists" - "Who Wants to be an Ethical Business Leader?" 17:00 "Personality, Leadership, and You" 18:30 Flamingo Bowl for Dinner and Entertainment
11 월 6 일	8:00 아침식사 8:30 Roundtable Discussion: How to Promote BGS in Your School? 9:00 Graduated, But Not Gone: Top 10 Ways to Find Business School in Your Future 9:30 단체사진 10:00 Learning to Read The Signs: What Kind of Leader Can I Be? 12:00 점심식사 13:00 Learning to Read The Signs: What Kind of Leader Can I Be?(이어서) 18:00 저녁식사 19:00 St. Louis 시내 투어
11 월 7 일	8:00 아침식사 9:00 Welcome and Announcements 10:00 Closing Session

St. Louis Student Leadership Forum 참가후기

경영학과 20051551

김민규

Student Leadership Forum 을 다녀와 제게 남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Leadership'과 'Globalization' 입니다. 서강대 챗터 대표로 열일곱시간여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면서,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여러 대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국경에 의한 장벽들이 그리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참여하던 Beta Gamma Sigma 의 문이 이제 세계로 넓어지고, 이 단체가 인지되는 범위도 늘어나고 있으며, 언어와 국경의 벽을 넘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면서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GMAT 담당자가 직접 와서 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들을 나누어 주었고, 또 이미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졸업 후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들으며 느꼈던 것은 한국에서의 직장생활과 미국에서의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회계 법인에서 일하는 한 선배는 바쁜 시즌에는 주 80 시간도 일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게 있어 이는 사뭇 충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진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활동 하나도 개개인의 참여를 중시하고, 각자의 의견 표현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고 팀웍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4 일 내내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MBTI 를 활용하여 같은 타입의 학생들끼리 그룹을 맺어주고, 이들 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의 진행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일정부분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편한 제게는 조금의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위안도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면 개인적인 문제이고 공통의 고민이라면 고민인 서강대학교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이번 Leadership Forum 을 통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직접 발표에도 참가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적극성만 있다면 타인들과의 소통은 한국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적 맥락상 더욱 쉬울 수 있고, 더불어 서강대에서 배우고 훈련해온 학문적, 실용적 지식과 능력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eta Gamma Sigma 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좀더 넓은 삶을 살아갈 실마리와 길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교훈은 이제 내년이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서도 꾸준히 마음속에 남아 제게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이권 교수님과 경영대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 Louis Student Leadership Forum 을 다녀와서

20071685 이은솔

3박 4일의 Student Leadership Forum 은 제게 있어서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Beta Gamma Sigma 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무작정 신청하게 되었지만 막상 다녀온 뒤에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22 시간이나 되는 곳까지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면서 갔지만 그렇게 고생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교류한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Forum 이 국제적인 행사까지는 되기 힘든지 미국 외에서 온 학생은 기껏해야 멕시코, 캐나다 정도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미국 학생들은 깜짝 놀라면서 22 시간이나 걸려 온 만큼 많은걸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전에 교환학생 등으로 외국생활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을 동시에 만난 적은 없어서 처음에는 그런 것도 매우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룸메이트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맺을 거란 미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간 진행된 여러 가지 Session 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주변사람들 바라보며 대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시각에 따라 매우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줄 묶여있는 것을 푸는 활동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Session 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편했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건 단체로 주어진 판에서 해답을 찾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배운 세 가지의 메시지인 '협동은 경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실수를 했으면 다시 돌아가 시작하라', '바깥에서 좀 물러나 관찰할 필요도 있다'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이 질의응답이나 토론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것 또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끌어가게 하여도 Session 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부분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외에도 강사분의 대답 또한 한국과 다른 면을 발견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만일 학생들의 대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모든 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칭찬 일색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사가 정리하는 식으로 Session 을 마무리하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셋째 날 진행된 "Learning to Read the Signs: What Kind of Leader Can I Be?" 도 매우 인상적인 Session 이었는데 이 Session 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았습니다. MBTI 테스트를 통해 비슷한 성향의 일원과 함께 토론해서 그런지 더 자신을 되돌아보기 쉬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Session 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St. Louis Student Leadership Forum 은 저에게 수많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학교에게, BGS 에게, 또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SLF)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U.S.A

20080980 경영학과
윤나영

2월 2일부터 2월 5일-3박 4일동안 이루어진 student leadership forum 은 저의 대학생활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1월부터 독일 만하임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중이어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포럼 후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전에 김이권 교수님과도 포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교 티셔츠, 학교 모자, 학교 홍보 브로슈어 등 꽤 많은 준비를 했기에 빨리 포럼 날짜가 다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를 대표해 열심히 토론이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우리 학교와 대만 학교 학생 빼고는 모두 미국인인 친구들 사이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은 기우였고, 결론적으로는 3박 4일 내내 단 1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럼 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으며 워밍업을 하고 바로 세션이 시작되어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여러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위의 사진은 첫 날 registration 을 하며 받은 책과 활동 과제들인데, 3박 4일 동안 무척 바빴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션은 강의식 세션과 팀/개인 활동,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식 세션>

먼저 이번 해 들어서 BGS 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Ethical issues 인데, 역시나 Ethical Leader 에 대한 세션도 이루어 졌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이루어진 반 월가 시위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CEO 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뿐만 아니라 도덕성, 책임감이라는 점을 주지할 수 있었습니다. “A Panel of Young Careerists” 세션에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언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계, 유통, 리서치,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젊은 멘토들의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여서 더욱 귀중했습니다.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세션은 “Learning to Read the Signs : What Kind of Leader Can I Be?”였습니다. 이 세션에 다룰 내용을 위해서 포럼 전에 작은 과제가 있었는데, 현재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궁금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팀/개인 활동>

세션은 유익했다면 팀/개인 활동을 통해서 몸과 두뇌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Teambuilding in Leadership”에서는 지리찾기 비슷한 게임을 팀을 이루어 해 봄으로써 팀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What Kind of Leader Can I Be?” 세션의 일환으로 자신의 궁금증과 미래에 대해서 큰 전지에 오로지 그림으로만 그려보는 활동도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그린 다른 친구들의 그림 설명을 들으며 서로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MBTI test 를 하고 똑같은 타입의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만약 내가 리더라면 다른 성향의 직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만약 다른 성향의 리더를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함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꽤 상세하게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TI 테스트는 해 보았지만, 결과를 가지고 깊게 이야기해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모든 학생과 스태프들이 함께 찰스톤에 위치한 U.S.S. York Town 에 견학을 갔습니다. 세계 대전 당시 쓰였던 군함을 보존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곳인데, 단지 리더십 포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려 노력하는 BGS 측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과 포럼을 함께하면서 미국 대학생들도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거나 스트레스로 쌓아두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 스스로 답을 찾아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낮가림 없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모습도 배워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교환학생을 하는 도중에 미국에도 가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 새로운 배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이 느끼고 성장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김이권 교수님과 경영대학에 감사드리며 포럼의 주제처럼 정말 멋진 리더가 되어 서강대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세션이 이루어진 곳



The Honor Society of

BETA GAMMA SIGMA

*Serving Business Programs
Accredited by AACSB Intern*



Faces of BGS





BGS 스텝들과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유학하는 도중 SLF 에 참여한 한국인





저희는 한 가운데 있습니다! ☺

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3박 4일 동안의 Beta Gamma Sigma, Student Leadership Forum 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과 깨우침을 안겨준 경험이었습니다. 비단 교수님들이 이끌어어나가는 세션의 메시지 뿐 아니라 그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교류 하나하나가 모두 커다란 교훈이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이렇게 감상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포럼 때 경험했던 새로움들이 잊히지 않고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느낌입니다.

Forum 의 공식적인 주제는 Leadership 이었으나 Forum 전반의 session 들이 학생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그보다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리더의 특질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리더가 몸담고 있는 그룹, 그룹을 형성하는 개인으로서의 현대인, 또한 그 그룹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쟁에 대한 고찰 전반을 다루고자하는 BGS 측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리더십(자기 커리어 관리를 포함한)을 둘러싼 윤리적 이슈들, 도덕적 경영에 대한 메시지로써 신뢰를 제 1의 가치로 두고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역시 새로웠습니다. 현대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경쟁에 임해야하는가,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이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답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교훈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열 명 정도씩 모여 앉혀놓고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게하고 스스로가 찾아 발표하면서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궁극적인 답(딱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에 다다르게 하는 식의 진행의 세션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미션을 모두 마치고 나니 그 답을 마음 깊숙이 체득할 수 있게끔 하는 진행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은 기회였습니다.

포럼의 각 세션의 진행 방식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Input 보다는 학생들에 의한 Output 에 의해 이어지는 방식이다 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가 매우 장려되었는데 이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참으로 인상적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답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이 발표를 했을 때 듣는 이들이 이 답을 어떻게 생각할까’까지 생각한 후에 발표하는 습관을 가진 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떠한 의견이든 일단 발표하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의 피드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미국 친구들을 보며 그 아이들이 가진 자신감과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끔 장려해준 사회적 문화, 분위기, 교육 방식 등이 참 부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포럼 세션 중에 BGS 라는 단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각 학교에서 BGS 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해보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 또한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몇몇 미국친구들의 경우 BGS 의 멤버라는 것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여러 BGS 기념일을 열심히 챙기며 선배들과 활발히 교류 장으로 백분 활용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강대에서는 BGS 라는 단체가 생겨난 지 3 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단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단 BGS 뿐 아니라 학교 내 소 Society 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BGS 같은 Honor Society 의 개념자체가 조금은 생경한 것이 사실인데, 외국의 친구들이 BGS 와 같은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니, 서강대 내의 BGS 가 얼른 활성화되어 그러한 훌륭한 네트워크 한 가운데에 서강대학교가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것은 제게 일종의 심포나 변환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쌓거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주어진 메시지를 익히고 받아들이는 제 방식이나 자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볼만한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럼에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며 포럼 내내 소통을 해보니 새롭게 배우는 점도 많았고, 느끼게 된 것도 많아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추억, 경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관계자분들, 그리고 BGS 서강대 챗터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권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BGS 파이팅~





포럼관련 사진 전체 볼 수 있는 사이트

<https://picasaweb.google.com/11116804579966434253/Winter2012StudentLeadershipForum?authkey=>

<Gv1sRgCImp1Zvn2IWfmgE>

2013 BGS Student Leadership Forum 보고서

20091080

채수정



1. 참가 준비

BGS Student Leadership Forum(이하 SLF)에 참가하기 앞서 BGS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한 역사와 정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BGS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미국 대학생들은 BGS의 일원인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날 세션에서도 BGS에 대한 퀴즈를 내니 미리 알아가면 더욱 의미있는 참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 경우엔 김이권 교수님께서 사전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현지 학생들과 어울도록 노력하라는 점을 유념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LF 참가가 확정되면 3일간의 일정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읽어보고 어떤 강연과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자칫 흐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능동적인 참가를 위해 나의 생각과 의견, 질문할 것들을 정리해둡니다.

2. Session & Activities

학생들은 3일간 다양한 강연과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에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세션들만 간추렸지만, 실제 세션은 이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알차게 진행됩니다. 아래 세션 이외에도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 BGS 멤버들과의 대화, CSX CEO의 강연, 토론 활동 등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1) Teambuilding in leadership

간단한 발판건너기 게임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세션이었습니다. 이전 기수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면 항상 나오는 세션이어서 어떤 활동인지 궁금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발판의 각 네모 칸들을 밟으면 어떤 것들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네모 칸만 밟으며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고, 각 팀의 팀원 전원이 발판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때 팀원들은 말하는 것을 뺀 손짓 발짓으로 발판을 건너는 친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고, 팀원끼리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인 게임입니다. 팀원들은 소리가 난 발판, 안전한 발판을 기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몸짓만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션의 주제인 Teambuilding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2) Who wants to be an ethical leader?

학생들은 인턴 구직자가 되어 상황극을 하게 됩니다. 나는 현재 두 회사의 인턴 면접을 보았으며 그중 한 회사는 정말 가고 싶어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꿈의 회사는 탈락, 별 생각 없던 회사는 합격 통보를 보냈고 곧 그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 하기 직전, 내가 더욱 원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입사제외가 들어온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 묻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칩니다. 자신의 커리어와 흥미를 택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약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으며 중역들 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3) MBTI 검사

첫 날 작성하게 하는 MBTI 검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성향의 학생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그룹지어주기 때문입니다. 테이블마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MBTI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와서 각 성격 유형의 특징을 설명해줍니다.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논리와 감수성, 확실성과 창의성 등 각각 상반된 성향의 어느 지점에 내가 자리하는 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특성마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각 특성의 양 극단에 선 학생들을 불러서 서로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4) Learning to read the signs: What kind of leader can I be?



'나'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요인들이 미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연자 Dr. Groom 과 Dr. Arvanites 의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을 듣고, 나의 고민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보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낸 세션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나누며 든 생각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모

든 20 대의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점이었습니다.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 주기도 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뒷풀이^^



일정 둘째 날 저녁에는 볼링장을, 마지막 날 저녁엔 Free evening 파티를 통해 신나게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BGS 멤버들은 모두 공부만큼이나 놀기도 잘 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소 빡빡한 세션 일정에서 벗어나 신나게 놀며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friendly 한 친구들인 덕분에 잊지 못할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무대 위에서 춘 것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맺음말

3박 4일간 잭슨빌에서의 SLF 에 참가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나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곳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의 학생들의 꿈을 들으며,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더욱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BGS 관계자 분들과 학교,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된 BGS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맥”이라 하면 모두가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학연, 지연, 인사청문회 등 좋은 단어들만 연상 시키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 역시 인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개인주의 사회인 서양사회에서는 인맥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지난 2010년 미국의 실업률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TIMES 는 취업난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실린 특집기사에서 “social resource 를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조언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 미국에서 역시 인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또한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Beta Gamma Sigma 라는 단체는 전세계 경영대학교 학생들 중 상위 10% 학생들의 모임으로서 학생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social resource”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즉, 미래 비즈니스 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Beta Gamma Sigma 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주최한 Student Leadership Forum 이란 미국 각지, 혹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회원들을 모아 리더십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사실 포럼의 주목적은 리더십 배양이라는 점도 있지만 학생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인맥을 쌓아가는 모임이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포럼 첫날 강연자 중 한명인 Dr. Cipton 의 말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의 강의 내용을 반만 이해하더라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돌아간다면 당신은 이 포럼에서 성공하고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미



국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포럼의 내용보다는 미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과 한국 학생들과 공통점, 차이점을 위주로 서술하려 합니다.

먼저 미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 학생들도 취업난에 고민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지낸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6%에 달하는 미국에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만 그들 또한 제 2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인턴십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 역시 인턴십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력서를 넣어야 했고 몇 번이나 실패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난은 미국의 학생이나 한국의 학생이나 구분 없이 모두를 고민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영어공부, 대외 활동과 인턴, 각종 수상경력 등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전쟁인데 미국의 상황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인턴십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에서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인턴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인원들 중 인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좋은 인턴십이 결국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학생들은 방학마다 인턴십을 을 찾아 다니며 인턴 경험 한번은 기본이고 다들 두 번, 세 번의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인턴 경험이 많이 중시 되고 있지만 졸업 전 대기업에서 채용전제 인턴십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실상이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턴십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나 대외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knowing the right people"이라고 답했습니다. 항상 공정성을 지향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할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해왔던 미국이었지만 친구들이 미국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생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 줄 만한 기회가 많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첫 인턴은 주위의 지인 분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학교의 인턴십 포럼등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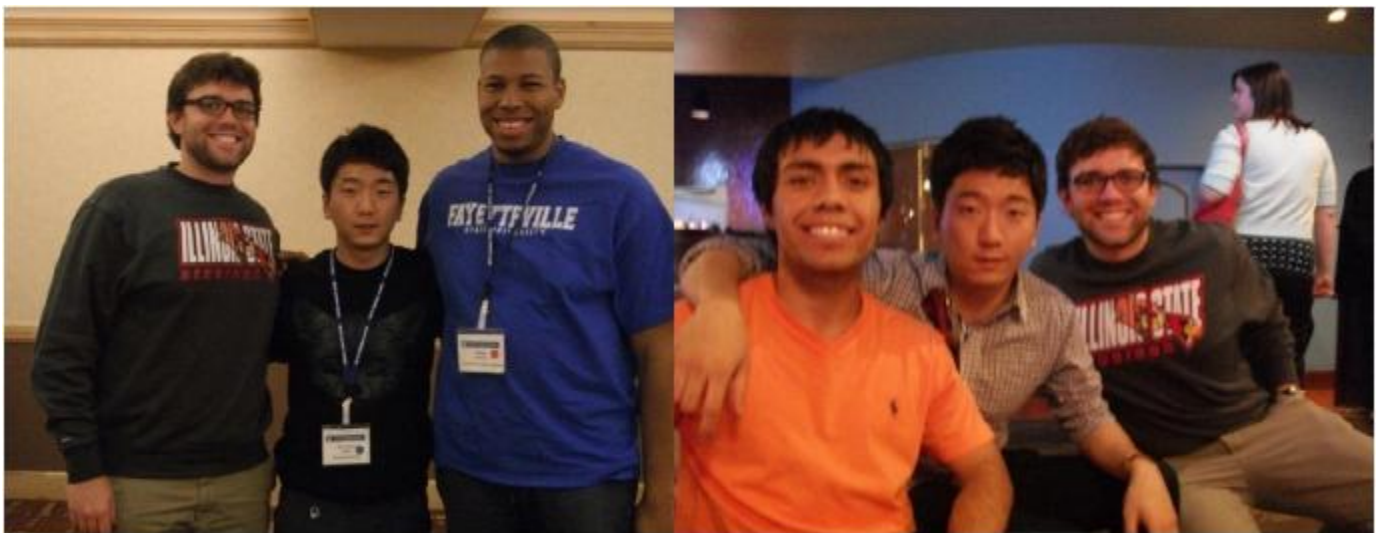
또한가지 미국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자신들의 지역의 local 회사들에서 즉, 한국에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서부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BIG 4 회계 법인이나 Wall street



<클럽에서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자 무대 위로 끌려 올라가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인기가 많은 듯 합니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 해 진 듯합니다.>

입성을 원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첫 직장으로 무조건 큰 회사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의 한국 대기업과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의식의 차이는 이직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치부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친구들은 세계적인 대기업 외에도 탄탄한 local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local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은 후에 더 좋은 조건에 자신을 찾는 회사를 찾아 이직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 한 친구들은 그만큼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덜 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미국의 친구들이 부러웠고, 대기업이라는 조그만 취업의 문을 향해 모든 학생들이 무한 경쟁을 하며 달려가야 하는 한국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또한 실제로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의 문이 넓어진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의 부담감 역시 줄어들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Student Leadership Forum 을 통해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는대거나 미국 구경을 했다고보다는 미국 전 지역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히 오지 않는 기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석하고 싶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학교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만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